

# 공공기관 홍보물 장애차별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홍보물 장애차별모니터링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모니터링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07

연구수행기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협력 기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공동 연구자	강희석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대표)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보조 연구원	김지영(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상근활동가)

# 차 례

I. 모니터링 개요 .....	4
1. 모니터링의 필요성	
2. 모니터링의 내용과 범위	
3. 모니터링 방법	
II. 모니터링 결과 .....	16
1. 1차 모니터링 사례 선별 기준	
2. 모니터링 1차 통계 및 분류	
3. 모니터링 2차 분석 결과	
4. 모니터링 내용 중 차별표현에 대한 결과	
III. 결과에 따른 제언 .....	30
참고.           차별표현 실태 모니터링 점검표 .....	34

## 1. 모니터링의 필요성

홍보는 ‘널리 알린다’는 뜻이다.

공공기관 대부분은 관련 집단 또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며 각종 정책을 알리며 여론을 수렴하고 언론기관에 결정사항 등을 알려준다. 정책을 입안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시민의 의견을 모으기도 하고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편견이나 차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보고 듣고 전파할 것이 넘치는 세상에서 사회 현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 또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TV나 라디오뿐 아니라 신문, 잡지, 인터넷을 통해 무수한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대중매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책 홍보 또한 시민의 공론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내는 홍보물 즉 매체가 어떤 단어, 표현법, 이미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민사회의 인식, 태도,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선택된 메시지는 개인들과 시민사회를 둘러싼 사회 전반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결정 짓는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 어떤 홍보물보다 공공기관 홍보물은 국가 정책의 방향 및 전달 체계가 국민과 소통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을 집단화하거나 대상화하는 표현은 공공성에 의문을 갖게 함은 물론 우리 사회 인권지표에도 상당한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장애에 대해 오랜 편견을 갖고 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이미지나 뿌리 깊은 인식은 주로 시혜와 동정, 극복, 봉사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동료 시민으로 또는 가까운 이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삶을 사는 존재로 타자화하고 있다. 선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든, 후천적 사고나 질병에 의해 장애를 입게 되었든 그 사람이 어떠한 사회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장애로 인한 일상적 삶의 불편과 어려움에는 차이가 크다.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이유는 신체 기능상의 손상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신체 기능상 손상을 지닌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 어떤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거리에 턱이 없고 기능적 손상을 보조해 줄 보조공학 기기와 공적인 인력지원이 되어 교육기관을 통해 학습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노동에 참여해 자기 선택적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집 밖을 나오는 것부터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기능적 손상에서 출발한 삶의 각도와 방향은 점차 커질 것이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일상적 불편 정도와 삶의 만족도는 10일 수도 100일 수도 있다. 또한 의학적 진단으로 손상의 정도가 비슷한 뇌병변장애인이래해도 삶의 욕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지원방법 또한 예산에 맞춰진 일괄적용이 아닌 개인맞춤형 지원으로 변화해야 개인 삶의 만족도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누구나 예외 없이 존엄을 보장받는 사회가 인권적 사회라는데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 표현은 그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 피해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공공기관 홍보물 차별 모니터링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야 할 장애 당사자 뿐 아니라 동료 시민으로써 어떤 표현이 차별 표현인가를 가려내는 것에서 시작해 공공기관 홍보물에서 차별 표현이 발화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 차별 표현의 부정적 효과와 재생산을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모니터링 내용과 범위

### 1) 모니터링 내용

공공기관의 홍보물 가운데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관점과 표현에 주목하였다.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을 가려내 고자 했다. 잘못된 장애인 반대말 표현,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표현, 장애인에 대한 고정 관념, 장애와 질병을 혼동한 표현 등을 살폈다.

공공기관의 구성원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장애에 대한 시각 즉 시혜와 동정, 극복, 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뿌리 깊은 편견과 고정관념은 차별과 혐오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모니터링의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 정확한 표기 및 의미 전달: 사진·이미지·정보그림·이모티콘·그래프 등이 정보의 의미를 정확히 비유·표현하고 있는가?
- 감수성 및 수용성: 세대·성별·장애·노약자·출신·지역·외보·인종·다문화·종교 등을 차별하거나 비방, 멸시하는 등 편견을 조장하고 있는가?
- 혐오 표현·폭력 방조·인권침해·명예훼손·성적 수치심 유발 등 타인의 사생활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가?

위의 관점을 바탕으로 좁혀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장애가 포함된 경우
- 장애와 관련하여 금지된 표현이 포함된 경우
- 장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담긴 경우

## 2) 모니터링 범위

■ 대상기관: 18개 부처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매체: 홈페이지 및 SNS(유튜브 중심)

■ 홍보물 유형: 보도자료, 포스터, 카드 뉴스 등 이미지, 문구가 있는 홍보용 게시물

■ 자료 검토 기간: 2019년 5월 ~ 2021년 4월까지(최근 2년간)

※ 모니터링 기간을 최근 2년으로 정한 이유는 시기성 및 현재성을 고려함

## 3. 모니터링 방법

### 1) 모니터링단 모집 및 구성

■ 모니터링단 모집: 모니터링의 목적을 담은 공고문 게시

■ 모니터링단 구성: 9명 지원, 개별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권 관련 활동 경험이 있거나, 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3인으로 구성

■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수립

- 모니터링의 취지 및 일정
- 대상 기관 및 매체 · 홍보물 유형, 모니터링 주안점 등 작성

■ 모니터링단 교육 및 회의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이해
- 장애인권 감수성 반영한 홍보물 모니터링 목적 및 필요성
- 정부 홍보물에 대한 이해
-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및 활동 보고서 작성 안내
- 모니터링 점검표 숙지, 진행 일정 수립 등
- 점검 항목에 따라 장애차별 요소 여부 점검

■ 모니터링단 중간 점검

- 홍보물 모니터링 주안점 논의

· 모니터링 내용 및 개선 의견 추가 · 보완

## 2) 모니터링 기간 및 도구

- 모니터링 기간: 3/25 ~ 4/25. 4차에 걸쳐 조사 완료
- 모니터링 도구: 인권위에서 제공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엑셀로 점검표를 정리해 결과를 분석함
- 모니터링 과정: 모니터링 할 정부부처를 나누고 역할분담에 따라 1차, 2차, 3차 자료 조사 후, 4차는 교차조사를 실시함으로 놓쳐진 것을 다시 살피는 과정을 거침
  
- 정부 부처별 모니터링 역할분담

1차/A 전담요원 2차/B 전담요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1차/B 전담요원 2차/C 전담요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1차/C 전담요원 2차/A 전담요원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3) 모니터링 진행 현황

#### ■ A 전담요원

· 1차 모니터링

번호	구분	운영사이트	운영모바일앱	합계	진행된 사이트
1	환경부	18	0	18	1. 발행물 (2019, 2020 연도별) 2. 알림/홍보 (그림 자료) 3. 홍보자료 (영상관, 지구의 초상) 4. 환경부 유튜브
2	고용노동부	3	3	6	1. 뉴스·소식 (카드뉴스, 보도자료) 2. 국방부 소개
3	여성가족부	15	3	18	1. 알림, 소식 (보도자료, 카드뉴스, 정책뉴스, 정책홍보자료 이미지) 2. 주요 정책 (홍보물, 발간문) 3. 부처 소개 4. 일·가정 양립 공감 뉴스레터 5. 캠페인
4	국토교통부	68	30	98	1. 뉴스·소식 (카드뉴스) 2. 소개, 인사말
5	해양수산부	19	2	21	1. 알림·뉴스 (카드뉴스, 사진뉴스) 2. 소개, 인사말
6	중소벤처기업부	47	7	54	1. 정책 아카이브 (홍보자료/발행물) 2. 알림소식 (미디어뉴스) 3. 소개, 인사말

· 2차 모니터링 진행 상황

번호	구분	운영사이트	운영모바일앱	합계	진행된 사이트
1	기획재정부	19	1	20	1. 기획재정부 유튜브 (인기 동영상 중심)
2	교육부	18	11	29	1. 보도자료 2. 교육부 유튜브 (인기 동영상 중심)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6	13	20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인기 동영상 중심)
4	외교부	214	2	216	1. 외교부 유튜브 (인기 동영상 중심)
5	통일부	9	-	9	1. 통일부 유튜브 (인기 동영상 중심)
6	법무부	34	2	36	1. 법무부 유튜브 (인기 동영상 중심)

■ B 전담요원

· 1차 모니터링

번호	구분	운영사이트	운영모바일앱	합계	진행된 사이트
1	행정안전부	31	13	44	1. 행정안전부 사이트 및 운영사이트 2. 행정안전부 유튜브 점검 (인기동영상 중심)
2	국방부	63	9	72	1. 정보공개 2. 국방 소식(알림, 국방뉴스, 보도자료) 3. 국방부 소개 4. 국방부 관련 사이트 일체

3	문화체육관광부	175	18	19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알림, 소식 (보도자료, 언론 보도, 사진뉴스, 동영상뉴스, 소식지)</li> <li>2. 주요 정책 (홍보물, 발간문)</li> <li>3. 부처 소개</li> <li>4. 문화포털, 도서관 홍보 나루, 어린이 우체국, 전자책 도서관,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사이트</li> <li>5. 문화체육관광부 유튜브 (인기 동영상 중심)</li> <li>6. 관련 사이트 일체</li> </ol>
4	농림축산식품부	45	9	54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알림 소식(공지, 보도자료, 인사)</li> <li>2. 소개, 인사말</li> <li>3.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브 (인기동영상 중심)</li> </ol>
5	보건복지부	32	25	57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자료 (카드뉴스, 보건복지부blog 연동), 간행물, 리플릿)</li> <li>- 영상(보건복지부 유튜브)</li> <li>- 이용안내, 장애인 이용안내, 복지로 뉴스레터, 복지뉴스, 이슈</li> <li>- 그림으로 보는 복지상(인포그래픽)</li> <li>- 복지로(복지 정보, 뉴스레터, 그림 복지 세상, 복지칼럼)</li> </ul> </li> </ol>

· 2차 모니터링

번호	구분	운영사이트	운영 모바일앱	합계	진행 된 사이트
1	환경부	18	0	18	1. 환경부 유튜브
2	고용노동부	3	3	6	1.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유튜브 (인기 동영상 중심) - 카드 뉴스
3	여성가족부	15	3	18	1. 여가부 유튜브
4	국토교통부	68	30	98	1. 국토교통부 유튜브
5	해양수산부	19	2	21	1. 해양수산부 유튜브
6	중소벤처기업부	47	7	54	1.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 C 전담요원

· 1차 모니터링

번호	구분	운영사이트	운영 모바일앱	합계	진행 된 사이트
1	행정안전부	31	13	44	1. 행정안전부 사이트 및 운영 사이트 2. 행정안전부 유튜브 점검 완료(인기 동영상 중심)
2	국방부	63	9	72	1. 정보공개 2. 국방 소식(알림, 국방뉴스, 보도자료) 3. 국방부 소개 4. 국방부 관련 사이트 일체 5. 국방부 유튜브

3	문화체육관광부	175	18	19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알림, 소식 (보도자료, 언론 보도, 사진뉴스, 동영상 뉴스, 소식지)</li> <li>2. 주요 정책 (홍보물, 발간문)</li> <li>3. 부처 소개</li> <li>4. 문화포털, 도서관 홍보 나루, 어린이 우체국, 전자책 도서관,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사이트</li> <li>5. 문화체육관광부 유튜브 (인기 동영상 중심)</li> <li>6. 관련 사이트 일체</li> </ol>
4	농림축산식품부	45	9	54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알림 소식(공지, 보도자료, 인사)</li> <li>2. 소개, 인사말</li> <li>3.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브(인기 동영상 중심)</li> </ol>
5	보건복지부	32	25	57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 완료.</li> <li>- 홍보자료 (카드 뉴스, 보건복지부 blog 연동, 간행물, 리플릿)</li> <li>- 영상 (보건복지부 유튜브)</li> <li>- 이용안내, 장애인 이용안내, 복지로 뉴스레터, 복지뉴스, 이슈</li> <li>- 그림으로 보는 복지상(인포그래픽)</li> <li>- 복지로 (복지 정보, 뉴스레터, 그림 복지 세상, 복지칼럼)</li> </ol>

· 2차 모니터링

번 호	구분	운영사이트	운영 모바일앱	합계	진행 된 사이트
1	행정안전부	31	13	44	1. 행정안전부 사이트 및 운영 사이트 2. 행정안전부 유튜브(인기 동영상 중심)
2	국방부	63	9	72	1. 정보공개 2. 국방 소식(알림, 국방뉴스, 보도자료) 3. 국방부 소개 4. 국방부 관련 사이트 일체 5. 국방부 유튜브 (인기동영상, 최근 순)
3	문화체육관광부	175	18	193	1. 알림, 소식 (보도자료, 언론 보도, 사진뉴스, 동영상뉴스, 소식지) 2. 주요 정책 (홍보물, 발간문) 3. 부처 소개 4. 문화포털, 도서관 홍보 나루, 어린이 우체국, 전자책 도서관, 한국관광공사, 지역N문화 5. 문화체육관광부 유튜브 (인기 동영상 중심) 6. 관련 사이트 일체 7. 문화포털 유튜브
4	농림축산식품부	45	9	54	1. 알림소식(공지, 보도자료, 인사) 2. 소개, 인사말 3.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브 (인기동영상 중심)

5	보건복지부	32	25	57	1.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 - 홍보자료(카드 뉴스, 보건복지부 blog 연동), 간행물, 리플릿) - 보건복지부 유튜브 (조회 수 1,000회 이상) - 이용안내, 장애인 이용안내 복지로 뉴스레터, 복지뉴스, 이슈 - 그림으로 보는 복지 세상(인포그래픽) - 복지로(복지정보, 뉴스레터, 그림 복지 세상, 복지칼럼)
---	-------	----	----	----	---

■ 자료 분석

- 장애인지 고정관념 및 편견
- 장애차별 표현 및 비하

■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목차 구성

## II

## 모니터링 결과

### 1. 1차 모니터링 사례 선별 기준

1차 모니터링 진행과정에서는 범위 안에서 장애가 언급된 자료들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하였다. 각 부처별로 다양한 자료 속에서 장애가 언급되었거나 장애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확인 과정에서 장애가 단순히 언급된 것이 아니라 표현과 맥락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취합하여 이후 점검과 검토를 위하여 자료화하고 정리하였다.

#### 1) 장애가 포함된 경우

- 장애 또는 장애인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장애인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 내용과 문맥 확인

#### 2) 장애와 관련하여 금지된 표현이 포함된 경우

- 장애우, 정신지체, 정상인 등 장애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표현으로 이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이 사용된 경우

#### 3) 장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담긴 경우

- 장애인을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 또는 동정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경우
-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경우 등 장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담겨 있는 표현의 경우 우선 분류

## 2. 모니터링 1차 통계 및 분류

1차로 장애와 관련한 표현이 있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그중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례들을 다시 재정리하였다.

- ‘장애우’, ‘정신지체’ 등과 같이 사용하지 않아야 할 표현이 사용된 경우
- 장애인과 비교대상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에 대해 ‘정상인’, ‘일반인’, ‘보통사람’이라고 표현된 경우
- 장애인의 성취와 관련해 ‘극복’, ‘딛고’, ‘넘어서’라는 장애 극복과 재활을 강조하는 표현
- ‘시혜와 동정’ 등의 오해되는 표현이 함께 쓰인 경우
- 문맥과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람보다 장애를 먼저 부각하는 경우

표본 분류 결과 다음과 같이 발견되었다.

- 장애와 관련한 금지된 표현 16개 발견
- 장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된 표현 18개 발견

주제	사례 수	비고
장애와 관련한 금지된 표현	16	장애우, 정신지체, 정상 등 표현 사용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 된 표현	18	장애 극복 / 능력 개발 장애인은~가 어렵다 / 안된다 등

### 3. 모니터링 2차 분석 결과

1차에 취합된 자료에 대하여 사례의 맥락과 목적 사용된 방향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검토와 분석을 진행한 바, 문제가 되는 표현의 사용으로 취합되었지만 맥락과 목적 상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으로 14개를 선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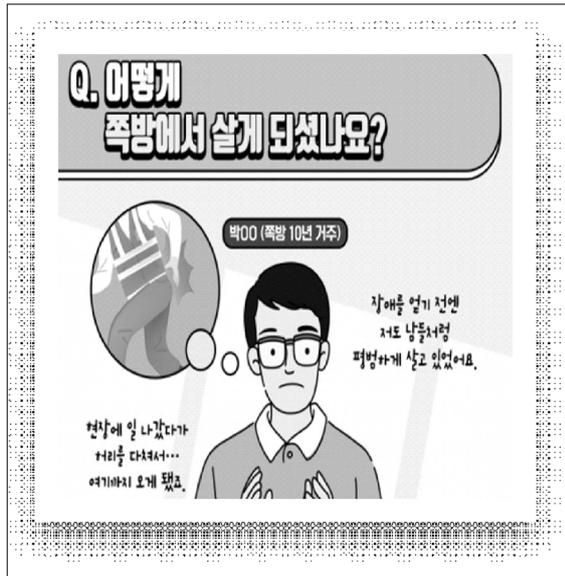
2차 분석 결과 1차에서 부적절한 표현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대부분의 사례들은 문맥상의 의미와 사용된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검토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반대적인 표현으로 ‘정상인’,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으로 이미 분류되어 있으며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장애우’라는 표현을 다수의 행정부처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해 여전히 낮은 수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하여 평등하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표현한 사례들이 발견되어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행정부처의 여러 자료 안에 표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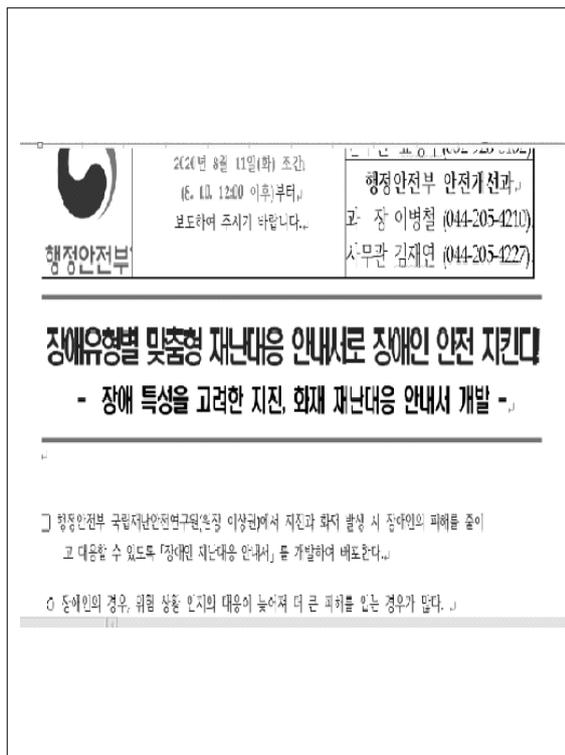
특히, ‘정신지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이미 2008년 ‘지적 장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자료에 여전히 옛날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법무부의 경우 장애와 관련하여 더욱더 많은 장애 인권교육과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자료 1



- 기관명: 국토부
- 매체 형식: 카드 뉴스
- 자료 제목: 0.9평 쪽방에서의 삶
- 내용: 장애를 얻기 전엔 저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 표현 맥락: 장애인은 비장애인들과 다르게 평범하게 살지 못한다는 편견을 담고 있고 또한 장애인은 가난하다는 편견을 준다.7

■ 자료 2



- 기관명: 행정안전부
- 매체 형식: 보도자료
- 자료 제목: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난대응 안내서로 장애인 안전 지킨다!
-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진,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개발
- 내용: 장애인의 경우, 위험 상황 인지와 대응이 늦어져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 표현 맥락: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전부가 위험 상황인지가 늦는 것으로 표현해 편견을 조장한다.

■ 자료 3

<p style="text-align: center;"><b>충주국유림관리소, 이웃사랑 실천 사랑의 땀감 지원</b></p> <p>• 등록일 2019-12-16 • 조회 185</p> <p>충주국유림관리소, 이웃사랑 실천 사랑의 땀감 지원</p> <p>□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선)은 충주시 대소원면 탄원리 5개가구 등 관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20m)를 13일 진행했다.</p> <p>nbsp;</p> <p>□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매년 숲가꾸기사업에서 나오는 산물 중 활용이 낮은 나무를 수집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생계지원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에게 땀감을 나누어 주는 「사랑의 땀감 나누어 주기 행사」를 추진해 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li> <li>- 매체 형식: 보도자료</li> <li>- 자료 제목: 충주국유림관리소, 이웃사랑 실천 사랑의 땀감 지원</li> <li>- 내용: 활용이 낮은 나무를 수집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생계지원 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li> <li>- 표현 맥락: '장애인'란 표현은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 존재로 규정하는 표현으로서 시혜적인 표현이다.</li> </ul>
--	---

■ 자료 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포상 훈격</th> <th>소속</th> <th>직위</th> <th>성명</th> <th>분야</th> <th>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총조근정훈장(대상)</td> <td>세일학교</td> <td>교사</td> <td>송이호</td> <td>특수</td> <td>경기</td> </tr> <tr> <td rowspan="2">녹조근정훈장</td> <td>대구남덕초등학교</td> <td>수석교사</td> <td>이인희</td> <td>초등</td> <td>대구</td> </tr> <tr> <td>이원고등학교</td> <td>교사</td> <td>박기영</td> <td>중등</td> <td>경기</td> </tr> <tr> <td rowspan="2">육조근정훈장</td> <td>간동중학교</td> <td>교사</td> <td>배덕진</td> <td>중등</td> <td>강원</td> </tr> <tr> <td>원광대학교</td> <td>교수</td> <td>강경숙</td> <td>대학</td> <td>전북</td> </tr> <tr> <td rowspan="4">근정포장</td> <td>솔빛유지원</td> <td>원장</td> <td>김정례</td> <td>유아</td> <td>경기</td> </tr> <tr> <td>인천약산초등학교</td> <td>교사</td> <td>구수진</td> <td>초등</td> <td>인천</td> </tr> <tr> <td>삼일여자고등학교</td> <td>교사</td> <td>민재식</td> <td>중등</td> <td>울산</td> </tr> <tr> <td>사북고등학교</td> <td>교사</td> <td>김문선</td> <td>중등</td> <td>강원</td> </tr> <tr> <td>영진전문대학교</td> <td>교수</td> <td>전상표</td> <td>대학</td> <td>대구</td> </tr> </tbody> </table> <p>□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학교교육의 신뢰와 희망을 만들어간 율해 수상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송이호 선생님(세일학교)은 자신의 신체의 장애를 받고 거둔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통 학생들보다 배움에 있어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한 지적 장애 학생들과 공유하며,</p>	포상 훈격	소속	직위	성명	분야	지역	총조근정훈장(대상)	세일학교	교사	송이호	특수	경기	녹조근정훈장	대구남덕초등학교	수석교사	이인희	초등	대구	이원고등학교	교사	박기영	중등	경기	육조근정훈장	간동중학교	교사	배덕진	중등	강원	원광대학교	교수	강경숙	대학	전북	근정포장	솔빛유지원	원장	김정례	유아	경기	인천약산초등학교	교사	구수진	초등	인천	삼일여자고등학교	교사	민재식	중등	울산	사북고등학교	교사	김문선	중등	강원	영진전문대학교	교수	전상표	대학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교육부</li> <li>- 매체 형식: 보도자료</li> <li>- 자료 제목: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 개최</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본인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 배드민턴, 배구, 휠체어 야구대표 등 스포츠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귀감이 되어 학생들의 여가활동 지도에 적용</li> <li>② 보통 학생들보다 배움에 있어 시간이 필요한 지적장애 학생</li> </ul> </li> <li>- 표현 맥락: '신체적 장애를 극복했다'라는 문장은 장애를 극복해야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보통의 학생'이라는 표현은 장애인 특성을 비교에 두는 표현으로 간주된다.</li> </ul>
포상 훈격	소속	직위	성명	분야	지역																																																								
총조근정훈장(대상)	세일학교	교사	송이호	특수	경기																																																								
녹조근정훈장	대구남덕초등학교	수석교사	이인희	초등	대구																																																								
	이원고등학교	교사	박기영	중등	경기																																																								
육조근정훈장	간동중학교	교사	배덕진	중등	강원																																																								
	원광대학교	교수	강경숙	대학	전북																																																								
근정포장	솔빛유지원	원장	김정례	유아	경기																																																								
	인천약산초등학교	교사	구수진	초등	인천																																																								
	삼일여자고등학교	교사	민재식	중등	울산																																																								
	사북고등학교	교사	김문선	중등	강원																																																								
영진전문대학교	교수	전상표	대학	대구																																																									

■ 자료 5

<p>□ 본 체험처는 다양한 지역 거주 다문화 이주민, 외국인, 장애우 등과 함께 공동체 활동 구성원 및 참여자가 되어, 기존의 주입식·일방적 교육·문화활동이 아닌,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재미와 긍정적 정서함양을 기르고자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교육부</li> <li>- 매체 형식: 보도자료</li> <li>- 자료 제목: 내 꿈 어디서 "여기서 찾아요"</li> <li>- 내용: 본 체험처는 다양한 지역 거주다문화 이주민, 외국인, 장애우 등과 함께 공동체 활동 구성원 및 참여자가 되어, 기존의 주입식, 일방적 교육, 문화활동이 아닌,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재미와 긍정적 정서함양을 기르고자 한다.</li> <li>- 표현 맥락: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 존재로 규정하는 표현으로서 시혜적인 표현이다.</li> </ul>
---	--

■ 자료 6

<p>○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일반인에 비해 열악한 장애인의 평생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예산을 2019년 대비 증액(35→46억원, +11억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교육부</li> <li>- 매체 형식: 보도자료</li> <li>- 자료 제목: 교육부 2020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 원 편성</li> <li>- 내용: '일반인'에 비해 열악한 장애인의 평생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내...</li> <li>- 표현 맥락: '일반인'은 특별한 지위나 신분을 갖지 아니하는 보통의 사람을 뜻한다. 장애인의 반대말로 일반인을 사용하여 장애인을 보통의 사람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였다.</li> </ul>
--	--

■ 자료 7

<table border="1"> <tr> <td>대학·청년 일반</td> <td>서울</td> <td>시각장애를 딛고 장애인을 위한 5건의 서울시 조례 개정 및 발의, 장애인식개선봉사 동아리, TED강연 등 배려와 열정을 갖춘 인재</td> </tr> </table>	대학·청년 일반	서울	시각장애를 딛고 장애인을 위한 5건의 서울시 조례 개정 및 발의, 장애인식개선봉사 동아리, TED강연 등 배려와 열정을 갖춘 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교육부</li> <li>- 매체 형식: 보도자료</li> <li>- 자료 제목: 2019년 대한민국 인재상, 내 꿈에 날개를 달다</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각장애를 딛고’</li> <li>‘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li> <li>‘여성 장애인으로서 도전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활동’</li> </ul> </li> <li>- 표현 맥락: 어떤 사람의 어떠한 노력 과정에 주목하기보다 장애를 부각하여 장애인을 초인으로 보거나 감동의 원천으로 과장하고 있다.</li> </ul>
대학·청년 일반	서울	시각장애를 딛고 장애인을 위한 5건의 서울시 조례 개정 및 발의, 장애인식개선봉사 동아리, TED강연 등 배려와 열정을 갖춘 인재			
<p>○ 청각장애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국가 대표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비걸(B-Girl)</p>					
<table border="1"> <tr> <td>대학·청년 일반</td> <td>경기</td> <td>장애학생 인권 동아리 설립, 뷰티 크리에이터 활동 등 여성 장애인으로서 도전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활동</td> </tr> </table>	대학·청년 일반	경기	장애학생 인권 동아리 설립, 뷰티 크리에이터 활동 등 여성 장애인으로서 도전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활동		
대학·청년 일반	경기	장애학생 인권 동아리 설립, 뷰티 크리에이터 활동 등 여성 장애인으로서 도전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활동			

■ 자료 8

<p>군인공제회의 국가유공자 위문봉사활동은 2013년 6월 시작돼 올해로 7년째에 이른다. 매년 국가보훈처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아 호국보훈의 달뿐만 아니라 설 추석에도 각 가정을 찾고 있다. 이외에도 군인공제회는 매년 <b>중증 장애우 시설</b> 자원봉사, 사랑의 밥퍼 나눔 봉사,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임직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주형 기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국방부</li> <li>- 매체 형식: 홈페이지</li> <li>- 자료 제목: 군인공제회,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위문</li> <li>- 내용: “군인공제회는 매년 중증 장애우 시설 자원봉사”</li> <li>- 표현 맥락: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 존재로 규정하는 표현으로서 시혜적인 표현이다.</li> </ul>
---	--

■ 자료 9

<p>(그림 5) 분자 비콘 NANO 센서를 사용한 인간 시료 분석</p> <p>정상인, 경도인지장애, 치매 환자의 혈장에 존재하는 바이오마커를 대상으로 분자영상기반 치매 조기 진단 키트를 사용한 특이적 miRNA 및 항원의 형광 이미지도. 치매 증증 정도는 PET(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및 신경심리검사 CERAD-K를 통해 분류를 하였고, 제작한 키트 사용결과 분류한 치매 증증 정도와 대조하였을 때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제작한 분자영상기반 치매 조기 진단 키트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정상인에서부터 경도인지장애, 증증 치매환자까지 진단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li> <li>- 매체 형식: 보도자료</li> <li>- 자료 제목: 국내 연구진의 신개념 치매 조기 진단기술 국제적으로 인정받아</li> <li>- 내용: “정상인, 경도인지장애, 치매 환자의 혈장에”</li> <li>- 표현 맥락: ‘정상인’이라는 표현은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지닌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규정하는 혐오·차별 표현이다. 비질 환자, 임상 연구가 가능한 자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li> </ul>
--	--

■ 자료 10

<p>○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목적 : 과학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다문화 아동, 새터민, 장애우, 실버세대 등)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과학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격차 해소 및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li> <li>- 매체 형식: 책자</li> <li>- 자료 제목: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 ('19~'23)」 2020년 시행계획</li> <li>- 내용: “장애우 등 과학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새터민”</li> <li>- 표현 맥락: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 존재로 규정하는 표현으로서 시혜적인 표현이다. 또한 ‘새터민’이라는 표현 또한 주류 집단의 시선으로 집단을 대상화한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li> </ul>
---	---

■ 자료 11

<p>□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주관으로 7월 8일(토)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9년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전남 여수시 송시마을이 최고 영예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p> <p>○ 송시마을은 폐교를 농촌체험장으로 개설했다. 폐교학생, 마을학생, 소독학생, 학생학생, 지역학생이라는 5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기업이다. 단 매출이 17억 원을 넘어섰고, 12명의 지역 일자리가 생기는 등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p> <p>○ 학교가 폐교되면서 아이들이 줄어들고 점차 침체되어가던 송시마을은 마을기업 설립 후 연간 9천명의 아이들이 농촌체험장에 방문하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p> <p>○ 또한, 수익금으로는 홀더 아동복지, 여성지역아동센터 등 장애인 체험행사 및 주민 화합행사 등을 열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행정안전부</li> <li>- 매체 형식: 홈페이지</li> <li>- 자료 제목: 2019년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 전남 송시 마을 최우수상 시상</li> <li>- 내용: “장애우 체험행사와 주민 화합행사”</li> <li>- 표현 맥락: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 존재로 규정하는 표현으로서, 시혜적인 표현이다.</li> </ul>
---	---

■ 자료 12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걱정이 없으셨고 안락하고 도비하는 나라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5px;">             김현수 장관, 설맞이 이웃사랑 실천         </div> <p>□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설명절을 맞아 21일 (화) 의왕시 소재 마리아의집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p> <p>○ 김현수 장관은 공직자의 이웃사랑 실천이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희망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p>*이재욱 차관(1.22): <a href="#">사회복지법인 두드림(장애우 지원시설, 충남 계룡시) 위문</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li> <li>- 매체 형식: 홈페이지</li> <li>- 자료 제목: 김현수 장관, 설맞이 이웃사랑 실천</li> <li>- 내용: “사회복지법인 두드림(장애우 지원시설)”</li> <li>- 표현 맥락: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 존재로 규정하는 표현으로서, 시혜적인 표현이다.</li> </ul>
---	--

■ 자료 13

<p style="text-align: center;">목포보호관찰소,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따뜻한 설 인심을 전하다!</p> <p>목포준법지원센터는 농협중앙회 후원으로 코로나 무직자, 일용직 노동자, 정신장애 장애인 등 코로나 19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4명에게 목포 시령 상동권(10만 원 상당)을 지원하여 훈훈한 설 인심을 경험토록 하였다.</p> <p>특히, 이번 원호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실직과 졸업은 임감으로 더욱 생활이 팍팍해져 힘들어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지역사회 훈훈한 인심을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포시령 상동권을 지급함으로써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법무부</li> <li>- 매체 형식: 보도자료</li> <li>- 자료 제목: 목포 보호관찰소,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따뜻한 설 인심을 전하다</li> <li>- 내용: ① 제목의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② “정신지체 장애우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li> <li>- 표현 맥락: 보호관찰 대상자를 불우한 존재로 전제하며 시혜와 동정을 구하고 있다. 또한,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은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표현하는 차별·혐오 표현이다.</li> </ul>
---	---

■ 자료 14

<p>나. 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박물관의 위상에 맞는 분위 있는 전시 설계 · 연출, 영상제작 계획 수립</li> <li>○ 전시 목적과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li> <li>○ 전시 구조물 및 영상물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제작, 설치</li> <li>○ 박물관은 공공 문화시설이므로 노약자 및 장애우의 편리와 안전도모</li> <li>○ 유아, 어린이 청소년 단체관람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진주박물관)</li> <li>- 매체 형식: 입찰정보</li> <li>- 자료 제목: 특별전(화력조선(가제)) 전시 설계 연출 및 영상제작 제안요청서</li> <li>- 내용: 박물관은 공공문화시설이므로 노약자 및 장애우의 편리와 안전도모</li> <li>- 표현 맥락: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은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표현하는 차별·혐오 표현이다.</li> </ul>
---	--

## 4. 모니터링 내용 중 차별표현에 대한 결과

### 1) 차별 표현 분석

정부부처에 대한 장애인 차별 표현 모니터링 결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자료는 점검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부처에서 장애에 대한 시혜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관점이 부적절한 차별 표현으로 발견되었다. 그 표현의 정도와 부정적인 측면의 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띠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고 하겠다.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이 내면화되어 있는 비장애인 중심적 표현이 여지없이 드러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장애우’, ‘정상인’, ‘일반인’, ‘정신지체’ 등과 같은 차별적 용어로 드러났기에 많은 우려점이 보인다.

예상했던 것보다 차별 표현이 덜 발견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제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 상승과 사회 전반적인 인권의식 향상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으로 보인다.

하지만,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장애인 혐오 표현과 차별 표현은 수시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홍보물은 국가 정책을 국민들과 소통하는 공식화된 공간으로 비장애인 중심의 기준 없는 일방적 표현이 여과 없이 사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할 수 없다.

이번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뿌리 깊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부정적인 시선들 때문이다.

언제든 정부부처의 관련 내용과 정책들 안에 잘못된 표현으로 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의식 부재는 이번 모니터링 이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 2) 차별 표현이 나타나는 원인 분석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서 드러난 ‘정상인’, ‘일반인’, ‘보통사람’, ‘장애우’, ‘정신지체’, ‘도전과 극복’ 등의 차별 표현의 원인에는 장애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잘못된 인식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또 공공기관 공무원조차 비장애인 중심의 정상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모니터링 결과 빈번이 드러난 ‘정상’이라는 부적절한 말이 함의하는 ‘관계의 장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에 대한 불안이 많은 우리 사회는 의료종사자의 진단에 따라 몸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병명이 없는 몸에 대해 ‘건강한 사람’으로 부르는데 익숙하다.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정상인이고, 그렇지 못한 몸을 가진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간주된다. 건강한 몸은 정상적인 몸으로 이어지고 정상적인 몸은 능력이 있는 몸으로 연결된다. 한편 장애인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대비되며 비정상이고 무능력하게 된 사람으로 연결된다. 건강, 능력이 정상의 맥락에 놓이는 순간 장애인의 삶은 비정상, 무능력한 사람으로 전락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질병에 관해 표현하거나 환자를 정상 범주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도 유사한 관점을 확산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많은 해석이 필요한 일임에도 건강한 몸을 기본값으로 하고 의심 없이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고 있기에 명백한 차별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 ‘장애우’라는 표현은 어떤 맥락에서 차별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표현 또한 명확하게 비장애인 중심의 표현이다. ‘장애우’는 내(장애인)가 나(장애인)를 지칭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이다. 그리고 이 말을 누가 사용하는가를 따져보면 관계의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을 친근하게 대하고자 하는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는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대상으로 전락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우’란 표현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장애인을 삶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이나 단어는 그 집단의 사회적 관계와 위치를 반영하고 있기에 평등한 관계는 틀어지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자료8, 자료12 모니터링 결과에

서도 드러나듯 ‘장애우’라는 표현은 설맞이, 추석맞이 등 어떤 특정 시기의 일회성 행사에 소비되는 표현인 경우가 많다. 이는 장애인의 삶이 일상적 시간과 공간에서는 괴리된 존재로 대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모호하지만, 맥락에 따라 해석이 필요한 ‘장애 극복, 또는 도전’라는 관점의 프레임을 살펴봐야 한다.

2019년 교육부 인재상에서 ‘시각장애를 딛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여성 장애인으로서 도전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활동’ 등의 표현은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온 누군가를 격려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또 장애는 노력으로 극복해야 성공한 삶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자칫 개인의 노력과 열정이 부족한 결과가 성공하지 못한 장애인으로 왜곡될 수 있기에 실제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약하는 사회적 문제는 감춰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특성의 하나로 인식하는 장애당사자에게 비장애인중심의 시선으로 포장되고 과장된 ‘장애 극복’은 불편할 뿐더러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느낌까지 갖게 된다고 한다.

관련해 어떤 사람을 명명할 때 의학적 용어 및 장애 진단명이 먼저 드러나며 그 사람의 다양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인 장애가 부각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1차 모니터링 조사에서 발견된 문체부의 지체장애인 영상감독, 국방부의 시각장애인 예술단 등은 개인 또는 집단의 전문성 보다 장애가 접두어처럼 표현되기도 한다. 이는 그 사람의 뛰어난 재능이나 수준을 고정관념이 갖든 ‘장애’로 일반화하거나 단순화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장애 극복’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을 야기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중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담고 있는 ‘눈이 빠지게’, ‘걱정에 눈 앞이 깜깜해요’ 등 관용구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장애는 장애 당사자나 그의 가족이 장애를 극복하고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와 환경이 장애인을 배제하는 물리적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이 자존감과 행복추구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공공기관은 앞장서서 차별적인 잘못된 표현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의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를 먼저 부각시키는 대신 장애를 가진 사람의 개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의학적 용어나 표현법으로 장애를 설명하거나 장애인의 손상 원인이나 정도보다 그를 둘러싼 지역사회 환경의 문제를 더 많이 조명해야 한다.

셋째, 장애를 극복 대상으로 드러내는가하면 성공한 장애인들만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

넷째, 장애인의 삶을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드러내며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되도록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장애인은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가정하지 말고 그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강조해야 한다.

### Ⅲ 결과에 따른 제언

공공기관 홍보물 차별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모니터링 사례 및 대응 방안을 확인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차별과 혐오의 제거가 공동체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전제할 때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은 중요하다.

정부부처 자료에 장애 혐오 표현이 발견되지 않아 다행스럽긴 하지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기인한 부적절한 차별 표현은 여러 부처에서 발견된바 향후 장애인 지 감수성을 기본으로 차별 표현을 차단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로 장애 영향 평가의 도입을 제안한다.

장애 영향 평가 도입을 통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포괄적인 영향을 법제화하거나 인권영향 평가에 장애영역을 포함시켜 권리를 보장한 부분과 차별 문제에 대한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독립적 모니터링 틀 구축을 통해 차별적인 부분에 대응하는 국가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더불어 해외 기업의 경우 CSR과 기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권영향 평가를 활용하여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공공기관 홍보물 차별 모니터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장애 영향 평가 제도 도입 또는 차별 모니터링이 정기적, 상시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유럽위원회와 회원국가들과 같이 차별 금지라는 인권의 틀을 기본으로 하여 차별 금지와 인권침해 방지를 핵심으로 모든 정책 분야에서 장애인들의 기회 평등을 주류화 해야 한다. 차별 표현에서 나아가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사고나 질병에 의한 장애 발생이 88.9%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로 인한 차별이 지속된다는 것은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다.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2005년부터 성별영향 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한 쪽

성에 치우쳐진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 하루에도 수차례 젠더 감수성에 의한 불평등의 문제가 사건사고로 드러나는 가운데 법적 강제력이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펼치는 여러 정책이나 사업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지 평가하는 양성평등 정책이 정착되도록 명료하게 기준점을 세운 것으로도 의미는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장애인의 차별은 불편과 불행을 넘어 불평등을 낳고 있기에 장애 영향 평가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

장애 영향 평가는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포괄적인 영향을 법제화하므로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홍보물 차별 모니터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장애영향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차별 모니터링이 정기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로 인한 삶의 어려움을 개인 또는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 뿌리 깊은 차별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차별 표현에서 나아가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전략 가운데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관심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은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 금지법")」등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특히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행위자에 대한 단계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불이행 시 처벌 등이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법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2009년부터 웹 접근성을 준수하기로 하였으나 실효적인 측면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책임성 및 수준 높은 웹 접근성을 높여 정상적인 웹 콘텐츠 사용이 가능한 일반 사용자부터 고령자, 장애인 같은 신체적, 환경적 조건에 제한이 있는 사용자를 포함해 모든 사용자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청각 장애인을 위해 영상에 자막을 넣거나,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키보드를 통해서도 웹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혹은 그 반대),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방법들까지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려는 면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교육물과 홍보물이 차별과 혐오를 유포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차별과 혐오적인 공공저작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웹 접근성 준수가 필요하다.

웹 접근성 향상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국내 대부분 사이트의 웹 접근성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로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웹 접근성이 선진국들에 비하여 낮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중요 정보도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웹은 교육, 고용, 정부, 전자상거래, 건강, 여가 등 삶의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웹 사이트들이 웹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홍보물 관련 구체적인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홍보물 점검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마련

- 셀프 점검 도구로 구체적인 예시와 사례가 담긴 ‘가이드라인’ 개발
- 홍보물 제작 완료 시 제출 첨부 문서로 지표화된 체크리스트 도입 의무화

■ 외부 전문가 참여 활성화

- 검토 과정에 장애인지 요소 분석 및 컨설팅 가능한 외부 장애인권 전문가 참여 확대

■ 모니터링 운영 체계 구축

- . 다양한 연령대와 장애유형별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지속적,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의견수렴 창구를 만드는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 통해 환류 기능 강화

■ 장애인지 홍보물 제작을 위한 교육 실시

- . 홍보물 제작 담당자 대상 정기적 교육과 구성원 대상 홍보물 관련 장애인지 역량 강화 교육 병행

<참고> 홍보물 차별표현 실태 모니터링점검표

개요	홍보물 명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처 <input type="checkbox"/> 청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
	출처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유튜브 <input type="checkbox"/> 페이스북 <input type="checkbox"/> 트위터 <input type="checkbox"/> 인스타그램 <input type="checkbox"/> 기타( )
대상집단	대상	
	구분	<input type="checkbox"/> 성별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인종 <input type="checkbox"/> 나이 <input type="checkbox"/> 출신지역 <input type="checkbox"/> 출신국가/민족 <input type="checkbox"/> 성적지향 <input type="checkbox"/> 성별 정체성 <input type="checkbox"/> 학력 <input type="checkbox"/> 병력 <input type="checkbox"/> 기타( )
매체	내용	
	구분	<input type="checkbox"/> 카드뉴스 <input type="checkbox"/> 교육자료 <input type="checkbox"/> 보도자료 <input type="checkbox"/> 리플릿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침 <input type="checkbox"/> 웹진 <input type="checkbox"/> 포스터 <input type="checkbox"/> 기타( )
	형식	<input type="checkbox"/> 책자(hwp, pdf 등) <input type="checkbox"/> 포스터(jpg, pdf 등) <input type="checkbox"/> 영상(mp4, avi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표현 내용	<p>*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 : “ ” 활용, 이미지캡처 등 가능 *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 해당 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효과에 대한 의견 등을 간략하게 작성</p>	
관련 증거	<p>* 해당 표현이 기재된 자료(파일명 등)</p>	
맥락	<p>* 혐오표현 배경, 맥락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p>	
비고		

## 공공기관 홍보물 장애차별모니터링

-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인쇄일	2021년 07월
발행일	2021년 07월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주 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전 화	02) 2125-9672